

GB 내 전통사찰 규제 완화

〈그린벨트〉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330㎡ 이상 사찰 2배까지 증축可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해 건축물 증·개축 등 불사에 제한을 받아 온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1월 29일 국무회의 법안이 통과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330㎡(100평) 미만의 사찰은 660㎡(200평)까지, 330㎡ 이상의 사찰은 연면적의 2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사찰의 연면적 신축은 건축물 대장이 아닌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일명 GB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로 삼게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GB관리대장에는 1972년 당시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누락됐던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간 불법건축물로 취급받았던 건물까지 규제받게 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산 범어사 보제루의 경우 1827년에 지어졌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그간 '불법건축물'로 분류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대성사의 경우 330㎡(100평), 부산 범어사는 18546㎡(562평)의 증축이 가능해졌다. 그간 이들 사찰은 불가피한 불사에 대해서도 수천~수억원의 개

발예산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통사찰들은 그간 수행과 수행, 전법을 위한 건축물 불사도 제한받는 등 사찰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대부분 사찰의 불사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대형사찰에 대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 화계사와 진관사 등 개정안의 증축규모를 초과

하는 사찰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당초 조계종은 특례조항을 뒤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전통사찰의 수행과 교화를 위해 필요하며 ▲건축물·유적물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증축규모를 초과해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안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조계종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무분별한 불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찰마다 '불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사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실 개소

조계종 직할교구의장 직할교구 활성화를 위한 사무처를 설치하고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직할교구는 이날 제1차 교구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예산과 사무처 운영방안, 대중결계와 포살법회 실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화선’ 상징 BI 개발

조계종 포교연구실, 심벌마크·이름 홍보 나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 조계종 포교연구실(실장 도선)이 간화선을 상징하는 '나를 찾는 선' 심벌마크를 개발해 보급에 나선다.

포교연구실은 최근 간화선에 대한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BI(Brand Identity) 및 네이밍(naming) 작업을 통해 '나를 찾는 선'이라는 이름과 심벌마크(사진)를 개발했다. BI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 브랜드 이미지를 통일하는 작업을, 네이밍은 상품이나 서비스·캠페인 등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심벌마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좌선하는 수행자의 모습에 녹색의 원형을 배치해 진정된 마음을 찾는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포교연구실은 "원형의 녹색은 나를 찾고 깨달음을 얻

나를 찾는 선



는 간화선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마음 안정과 평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간화선'이라는 용어 대신 간화선 수행의 핵심을 쉽게 풀이한 '나를 찾는 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간화선을 좀 더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포교연구실은 해당 심벌마크와 네이밍을 교육용 자료로 상표출원한 상태다.

여수령 기자

교단자정센터 신임 원장 경력 논란

보안사 근무 이력 놓고 "부적절 인사" 비판 여론

최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원장에 취임한 최경준 원장의 보안사 경력이 논란을 빚고 있다.

1월 30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최경준 원장은 "공직생활을 33년간 했고, 그중에 불교정책 지원업무 13년간 했다"며 "특히 군과 불교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군불교 발전 등 불교계에 큰 도움을 줬는데 불교계에서 이력을 문제 삼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 원장은 "보안사에 있다고 모두 사찰을 한 것은 아니며 사찰은 보통 대공방첩 분야에서 담당한다"며 "내가 불교계에 큰 해를 입혔고 부정적인 인물로 비쳤다면 교단자정센터에서 왜 추천을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원장의 임명에 대한 교계의 반응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서동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의장은

"이번 인사는 회원장의 군 정보기관 근무 능력을 교단 모니터링 업무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최 원장이 불교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도 군부독재 시절 보안사 경력은 자정센터장을 맡는데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중앙신도회 이지범 기획실장도 "불교 NGO 단체의 인재 검증 시스템 부재가 현실로 드러난 안타깝다"며 "불교계를 감시했던 사람이 아무 리 참회한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이렇

게 부적절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이번 인사는 재가연대 설립목적과 본래 의미는 물론 한국불교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의 한 관계자는 "최 원장의 군 경력을 통해 체득한 행정 처리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교단자정센터 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업무의 실용성을 따져 볼 때 실 보다는 득이 많다"고 경력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교단의 자정과 청정을 위해 발족된 자정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인사는 분명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주일 기자

기자수첩 김강진 기자

복지시설 관리와 언론의 태도

'알몸체벌 어린이집'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문제는 1월 28일 한 인터넷 언론매체가 단독 입수한 5세 여아의 알몸체벌 사진을 게재, 기사화하면서 시작됐다.

기자는 사건이 알려진 당일 서울 이태원동의 해당 어린이집을 찾았다. 이 어린이집은 용산구청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한 시설이다. 기자가 찾아가자 원장은 "불자들에게 송구스럽고 낯을 들 수 없다"고 거듭 사과하며 "책임지고 풀려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어린이집이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시설은 아니었다. 이 동네 통장 김모씨는 "원장 내

외가 아이들에게 정성을 많이 쏟았다"고 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를 넘은 체벌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 운영법인 모두에게 있다. 1월 31일 현재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해당 보육교사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위탁운영권을 용산구청에 반환한 상태다.

이 사건을 통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행여 야 할 일이 있다. 재단은 수탁기관이 110여 곳에 달하는 불교사회복지의 '대표선수'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 기능이 없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단에서도 앞으로 시설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며 전담직원을 두고 산하시설 종사자 소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언론의 '머러사냥'이다. 인터넷 매체에서 사건이 알려진 당일 오후 해당 어린이집에 방송·신문 등 주요 언론사가 모두들 이따졌다. 모니터링 결과 취재 내용은 인터넷 매체에서 울린 기사내용과 대동소이했다. 같은 사건을 같은 시각에서 재탕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부정적 시각만 계속 덧칠될 뿐이었다.

'외눈'으로 바라본 언론의 보도 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 (소비자가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정승혁]

국내 최대 일만관 범종 탄생

- 화천 세계 평화의 종(10,000관) -

광주 민주 종 8150관(현존 국내 최대)

聖鐘社 SUNG JONG SA

-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 사이트 : www.sungjongsas.co.kr / E-MAIL: sungjongsas@hotmail.com
-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대한민국 명장)